

좌절한 사회주의 실험 성찰하고 대안적 사회주의 구상해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반노동의 유토피아》

송병헌 | 한성대 겸임교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모순은 사람들을 억압하기에 이르렀다. 현실사회주의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식된다. 이 책들은 비판적 시각으로 현실사회주의를 평가한 의미 있는 저작이다. 실현 가능한 대안적 사회주의와 진정한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희망하는 두 책에서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적 대안은 이미 '죽은' 것이며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나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사회적 모순과 고통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에 대한 물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현실사회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두 권의 책을 평가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조명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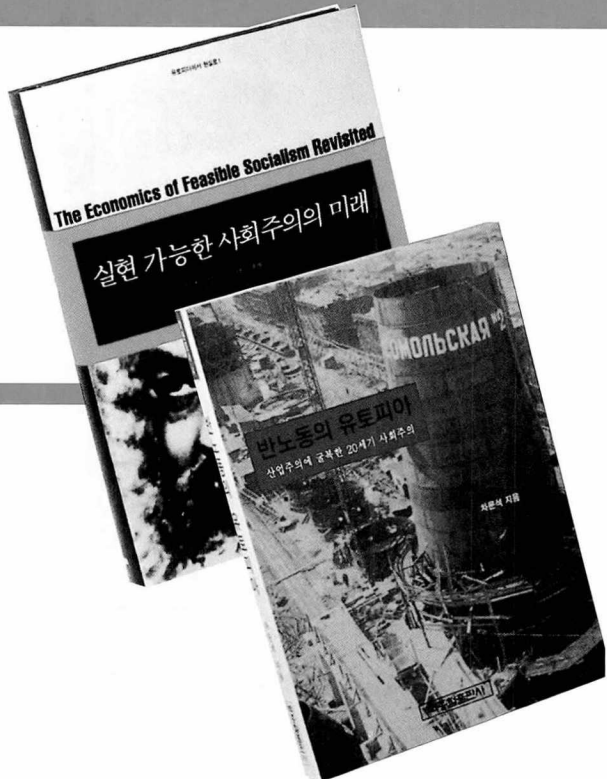
왜 이 두 책을 함께 검토하는가? 그 이유는 출간 시점의 유사성(2001년 11월 말)뿐만 아니라 다루는 주제와 내용의 일정한 공통점 때문이다.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알렉 노브, 대안체제연구회, 백의)와 《반노동의 유토피아》(차문석, 박종철출판사)는 모두 기존의 현실사회주의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앞의 책은 소련과 동유럽, 중국의 기존 사회주의 체제를 다루고 있고, 뒤의 책은 소련, 중국, 북한의 사회주의를 다루고 있다. 또한 두 책 모두 현실사회주의 체제들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사회주의적 대안의 가능성을 여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두 책 모두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을 촉

구하고 옹호하는 사회주의 옹호론이다. 다만 전자가 온건하다면 후자는 좀더 급진적이다.

소비에트 모델과 계획 만능주의 비판해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는 지난날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지배적인 모델로 군림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모델과 이 모델을 뒷받침했던 계획 만능주의라는 중심 이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소비에트 모델의 한계는 사회주의 경제와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유토피아적 관념에 근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마르크스에 소급되는 시장 폐지의 이상은 필연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계획체제와 위계적인 관료주의 체제를 요구했으며, 이런 경제체제 아래서는 모든 민중이 직접적으로 통치한다는 정치적 이상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결국 오늘날 사회주의의 실패는 계획을 맹신하고 계획-시장을 대립시킨, 과거의 독단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 관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과거의 사회주의 관념은 본원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이 공상적이고 독단적인 관념에 기초한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정치적 전체주의를 수반했고 결국 파산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이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알렉 노브 지음 | 대안체제연구회 옮김
백의/A5신/528면/20,000원

《반노동의 유토피아》

차문석 지음
박종철출판사/A5신/408면/18,000원

런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실현 가능하고 개연성 있는' 대안적 사회주의를 구상한다. 그 체제는 국유와 사유가 병존하고 시장과 계획이 결합된, 다양한 차원에서 민주주의적 참여가 제도화된 사회주의 모델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모델'은 현재의 시장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의 어떤 체제와 크게 다르다는 인상을 받을 수 없다. 즉 이 책의 대안은 온건하고 어쩌면 그렇게 새롭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대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책은 기존 사회주의의 현실을 풍부히 제시하고 과거의 사회주의 개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대안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가 시장-계획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구상과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토피아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고 있다면, 《반노동의

유토피아》는 사회주의와 노동의 해방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현실사회주의 체제를 지배해온 허구적 유토피아(지은이는 이를 '반노동의 유토피아'라 부른다)의 신화와 이 신화와 모순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진정한 유토피아의 복원과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해방의 이념은 허구적

앞의 책과는 달리 이 책에는 사회주의의 진정한 유토피아(노동자의 통제가 의미 있게 실현되고 궁극적으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뤄지는)를 향한 지은이의 희망이 강하게 담겨 있다. 이런 사회주의의 진정한 이상에 관한 지은이의 희망과 관점을 배경으로,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준열한 비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즉 소련, 중국, 북한을 아우르는 현실 사회주의는 실상 노동자의 착취와 과도한 노동을 정당화하고 조장한 허구적 유토피아에 지배돼왔다는 것이다. 그 허구적 유토피아는 현신적이고 금욕적인 노동을 강조하고 '공산주의 윤리'로 격상시킨 노동의 신화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영웅을 만들고 경쟁을 부추겨온 사회주의 경쟁이데올로기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발전사회주의의 왜곡된 현실이 지속됐다. 이 허구적 유토피아는 진정한 사회주의의 이상인 노동자의 해방에 기여하기는커녕, 반대로 노동자 대중의 노동력을 극단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는 담론적 도구로 기능했으며 사회주의적 착취의 지속과 강화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허구적 유토피아의 경제적 성과는 매우 적거나 없었다. 사회주의적 경쟁이 강조되면서 정상적인 생산의 파행과 담합과 흥정, 허위보고, 형식주의가 만연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졌다.

또한 사회주의적 경쟁과 연관된 물질적인 센터브의 강조는 결국 반(反)사회주의적 의식과 행태를 조장해 사회주의적 연대의 상실로 귀결됐다고 본다. 이런 결과에 이른 근본적

“두 책은 비판적 시각에서 현실사회주의를 평가한 의미 있는 저작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사회주의라는 주제에 관한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많지 않았던 한국의 지성사회에서 두 책은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지적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배경은 의사결정과 잉여배분의 우선적 권한이 관료에게 집중된 반면 노동자 대중은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사회주의의 정치-사회적 모순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 현실 사회주의가 이런 파국적 결과에 이른 원인은 무엇인가? 지은이는 그 원인을 궁극적으로 소련, 중국, 북한의 사회주의가 출발해야 했던 후진적인 환경 때문으로 본다. 후진적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요구됐던 압축성장을 위해 엄격한 권위주의 체제가 필요했고, 노동의 신화화와 사회주의 경쟁을 통한 생산력 증대라는 방법이 요구됐다. 다른 대안은 없었다. 이런 후진성에 따른 근본적 제약과 사회주의적 계획의 비효율성이 결합해 현실사회주의 경제의 파탄과 노동자 대중의 억압적 노동과 고통을 불렀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노동자 대중의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해온 이런 '노동자국가'의 현실을 소련, 중국, 북한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이들 나라에서 제시된 '노동해방'의 이념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었던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진정한 해방의 유토피아가 복원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분명한 사회주의적 대안 제시하지 못해

이상에서 간략히 내용을 소개한 두 책은 비판적 시각으로 현실사회주의를 평가한 의미 있는 저작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사회주의라는 주제에 관한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많지 않았던 한국의 지성사회에서 두 책

은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지적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는 시장과 계획의 조합문제와 관련해 1980년대 중반이래 진행된 사회주의 경제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논쟁을 촉발한 저작이다. 《반노동의 유토피아》는 사회주의와 노동조직(노동해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자에 의해 씌어진 소수의 의미 있는 저술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계도 보인다. 두 책 모두 사상사적 맥락의 해명에 소극적인 듯 보인다. 특정한 이념은 객관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 받지만 동시에 이념은 자체의 역사에 의해서 규정받는다. 현실사회주의가 계획을 독단적으로 강조하게 된 사상사적 맥락은 무엇인가? 현실사회주의가 산업주의적 발전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된 이념적 배경은 무엇인가? 특정 사회주의 관념의 배경이 된 사회주의 이론의 역사 및 이론간의 상호 영향과 투쟁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해명이 보완돼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또한 두 책 모두 사회주의적 대안의 분명한 모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의 경우, 대안적 사회주의 모델의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모델이 기존의 시장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의 특정 현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더욱 진전된 '사회주의'인지 불명확하다. 《반노동의 유토피아》의 경우 대안적 사회주의의 모습은 시사적으로만 언급될 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 책들을 계기로 향후 사회주의적 대안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송병현 교수는 서강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왜 다시 사회주의인가> 《현대 사회주의 이론연구》를 펴냈고 <사회개혁이나 혁명이나>를 번역했다.